

# 우리는 Art Star

2020. 충북유아문화예술교육



쉐마미술관의 "Schema"는 쉐마미술관이 현대미술의 ‘창조의 샘’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현대미술 작가이며 미술학 박사인 김재관 교수가 2009년 청주에 설립한 사립미술관으로 청주 지역의 현대미술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현대미술의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작품전을 기획하여 지역 예술인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예술체험 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 공동체로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청년작가 공모전시, 국제교류전, 지역 간 교류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쉐마미술관 아트포럼을 운영하여 각종 전시와 워크숍을 갖고 미술관의 교육, 연구, 전시 기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문화사적 가치를 현대미술로 해석하는 프로젝트의 연구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고유문화를 현대미술의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무지개다리 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쉐마미술관의 한영애 실장님을 만나 올해 두번째 해를 맞이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아트스타’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한영애

---

- 現 쉼마미술관 학예 실장
- 現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비주얼아트학과 강사
-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무지개다리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씨앗큐브 기획 및 총괄
-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아트스타 기획 및 총괄

# Introduction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 ‘아트 스타 (Art star)’는 5월~12월 동안 지역의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15기관이 참여하여 방문형 1회, 체험형 2회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으로의 장소적 특수성이 지니는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적 회화 작가인 신용재 작가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공간의 제약과 자유로운 예술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작가와 함께 예술적으로 ‘몰입’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계절의 하늘을 다양한 도구로 관찰하고 생활 속 자연환경을 감상하면서 변화하는 하늘을 관찰하여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아이들은 예술적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상으로부터의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예술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재 작가는 시간의 서사를 기록이라는 형태로 각인시키는 작가이다.

작가의 페인팅은 그가 날마다 새로운 기억을 품고 또 추억하며 그리는 하늘을 아카이빙 형태로 담아낸다. 그리고 이 기록은 작가의 인생의 무대이자 원초적인 오브제가 된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인생과 하늘이라는 매개 사이에 존재하는 기억을 절제된 감정과 함께 하나의 하늘로 보여주고 있다.



# Program

1

## 하늘 담은 스타

- 작가의 작업실을 탐험하여 일상의 화가의 모습을 상상하기
- 새로운 도구를 통해 주변의 환경을 몸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기
- 자신들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2

## 하늘 화가

- 작가와 함께 미술관의 자연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을 자연물로 상상한 여러 형태의 도구들로 변형시켜 아이들과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경험 공유하기
- 템페라 물감 만들어보고 체험하기

3

## 춤추는 아트 스타

- 작가가 되어 작품을 만들 때 들리는 일상 속 소리 들어보기
- 소리를 통해 감정을 상상하며 소리에서 색 찾기
- 야광 물감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몸짓으로 추상회화를 경험해 보기

# The moment

1

2

3

1. 거울에 비친 하늘
2. 하늘에 내 모습 담기
3. 손가락 카메라 만들기





## Closing

---

새로운 미술의 틀에서 미술은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닌 ‘하는 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에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 교육에서 ‘참여’는 중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관 교육의 참여 경험은 미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뿐 아니라 공동 작업을 통해 다양한 유대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의 경험은 그렇기 때문에 유아, 초등, 청소년들의 시기에 자신들의 경험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새로운 관심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경험은 미술과의 즐거운 소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Epilogue

유아문화예술교육 아트스타 수업은 평일에 진행되어 아쉽게도 실제로 참관할 수 없었지만, 인터뷰 당일 참관한 꿈다락 수업을 통해 쉼마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평소보다 진지한 아이의 모습에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긋해 보였다.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며 자신들의 작품에 마음을 담아내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듬뿍 애정을 쏟아낸다. 서로를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는 이 시간들이 무척 소중한 보였다. 그 날을 세 장의 사진으로 기록해보려 한다.

A group of people in a dimly lit room, possibly a workshop or meeting. Some individuals have their hands raised, suggesting an interactive session. The scen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dark rectangle containing white Korean text.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의 작품을 존중하기

함께, 행복하기

